

# 美 이민개혁안 놓고 오바마-공화당 연일 충돌

### 불법 체류자 500만명 사면 명령 민주당도 “불가피한 조치” 가세 공화당 “권한 남용...불순한 동기”

미국 정치권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사면에 관한 이민개혁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격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계속 대립각을 넓혀가는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일제히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동시다발로 출연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발동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월권 논란에 대해선 “사실 나는 행정명령을 자체 해 온 편”이라면서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라스베이거스 델 솔 고등학교 특강에 이어 전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시카고의 코페르니쿠스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 연설할 예정이다.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인 셈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디 더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인터뷰를 통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이번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애리조나 주 출신인 존 매케인, 제프 플로레이크 상원의원은 지역 언론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기고한 공동 기명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이민개혁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민개혁 문제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상, 하 양원 의원들을 모욕한 것”이라면서 “의회를 향해 ‘당신들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에보트(공화) 텍사스 주지사 당선자는 폭

스 뉴스의 ‘선데이’(Sunday)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민개혁안이 멕시코와 접경지역인 텍사스 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 제소,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한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화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부 비판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44%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연합뉴스

## 일본 강진에 사망자 없어

### 주민들 끈끈한 연대로 ‘기적’ 일궈

지난 22일 일본 나가노(長野)현 북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23일까지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현지 주민들의 끈끈한 연대에 힘입은 바 컸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24일 소개했다. 이번 지진으로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이 54채에 달했고, 중상자 7명을 포함해 부상자가 41명으로 파악됐지만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진의 규모 자체도 컸지만 진원의 깊이(5km)가 얕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주택 여러채가 무너진 나가노현 하루카마루(白馬村) 가미시로(神城) 지구 후리노우치(堀之内)구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22일 밤부터 이튿날까지 주민들의 필사적인 구출작전이 벌어졌다. 집이 무너지지 않은 주민들이 붕괴한 가옥으로 모여들어 초기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잔해를 치우고, 일부는 깔린 주민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큰 소리로 응원을 했다. 한 붕괴된 주택에서는 소방관과 인근 주민 5명이 두 살짜리 남아와 세 살짜리 여아의 생명을 살렸다. 이와 함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진 때에 비해 붕괴된 가옥이 적었던 것은 눈이 많이 내리는 현지의 특성에 따른 가옥 설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다. 폭설을 견딜 수 있게끔 기둥을 많이 쓰고, 기둥의 두께도 굵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기에 피해가 그나마 작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중부 나가노(長野)현 북부 지역에서 22일 오후 10시 8분께 규모 6.7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 4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주택 54채가 전파 또는 반파됐다. /연합뉴스

## 미국내 불법체류 한국인 18만명 추산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이 약 18만 명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주별 불법체류자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이 같은 수의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약 16만 명이던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 11만 명가량으로 줄었다가 2005년 약 15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7년 18만 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후에는 2012년까지 계속 18만 명 수준을 유지했

다. 퓨리서치센터의 이번 집계에서 멕시코인 불법체류자가 약 58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67만5000명), 과테말라(52만5000명), 인도(45만명), 온두라스(35만명) 순이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인(30만명)과 필리핀인(20만명)에 이어 국가별로는 8위였다. 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군사훈련 동원 어린이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수도로 선포한 시리아 락카의 군사훈련 캠프.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락카’는 조용히 학살되고 있다’는 이름의 반(IS) 단체가 20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것이다. IS도 카자흐스탄 어린이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동영상도 최근 인터넷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 IS장악 국경지대 마을 탈환

### 이라크 정부군

이라크 정부군이 23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가 장악했던 이란 국경 지대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전은 지난 6월 IS가 장악한 수도 바그다드 북동쪽 디알라주(州)의 자라우라와 사디아에서 이뤄졌다. 이라크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 민병대가 자라우라와 사디아의 남쪽과 서쪽에서, 쿠르드 민병대 페시메르가 사디아의 북쪽과 동쪽에서 공격했다”며 “작전 과정에서 폭발로 페시메르가 대원 20명이 죽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IS의 근거지인 이 두 곳은 쿠르드 자치지역이나 이라크 정부군을 돕는 이란과도 인접한 중요한 지역이다. 지난 여름까지 일방적으로 IS에 밀리던 이라크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의 지원으로 전세를 회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의원 해산... 日, 선거정국 시작됐다

### 내달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일본 중의원이 해산함에 따라 선거 정국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 선거 공시 후 시작할 수 있지만, 해산 후 공시까지 공백기가 짧기 때문인지 벌써 여론전이 뜨겁다. 여야는 국회 해산 다음날부터 지역구 등을 돌며 유권자에게 얼굴 알리기를 하거나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으로 경쟁자를 견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2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 지원, 교부금 제도 신설, 자녀 양육 가구 지원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3개 매체와 인터뷰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해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NHK 특별토론 방송에 출연해 경

기 회복을 위해서는 “아베노믹스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옹호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후쿠오카(福岡)시의 호텔에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 해산’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베 리스크(위험) 감추기 해산’이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직 총리 2명이 거리로 나서 유권자를 만나는 등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를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분주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민당에 정권을 뺏기기 직전에 민주당을 이끌었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22일 지바(千葉)현 후네바시(船橋)시 상점가에서 “이번 선거로 4년간 백지 위임받아 헌법이나 원전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를 하려는 것이 해산의 최대 이유”라며 여당의 노립수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공조를 모색 중인 유신당은 22일 “아베노믹스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고 명시한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